49

2018

디자인진흥원사

- 제16대 윤주현 원장 취임
- 세대융합창업캠퍼스 개소
- 디자인통합민원센터 개소
- 한베디자인센터 개소
- '디자인 유레카 스튜디오' 중기상품 판매 라이브방송 시작

한국 디자인사

- 융복합 가전 브랜드 LG오브제 출시
- 경기도 국내 첫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 플러스엑스(신명섭) '백만 불 수출의 탑' 수상

한국 사회사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 남북 정상 회담 11년 만에 판문점에서 개최
- 유튜브 국내 사용자 3천만 명 돌파
- 국내 총생산(GDP) 3만 달러 돌파
- 방탄소년단 빌보드차트 1위
- 미투 운동 확산

'산업 트렌드 키워드' 전망부터 '혁신적 디자인 솔루션' 분석까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전기와 석유를 이용한 대량생산 시대인 '2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이끈 '3차 산업혁명'을 넘어 21세기,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가 동시에 맞이한 커다란 물결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저성장, 변동성 확대, 저유가, 글로벌 생산성 저하, 산업 경쟁 구도 심화 등에 대한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의제로 설정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전례 없는 기술 진보 속도와 파급력으로 지속적인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로 사회적 불평등, 빈부 격차 심화, 노동 시장 붕괴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었다. 여기에 대해 디자인을 통해 부정적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에 힘이 실렸다. IT 기술의 태동과 함께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디자인은 산업 생태계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승부처로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디자인만이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해답이라는 것이다.

디자인은 단순히 '직업'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자원, 하나의 역량, 하나의 혁신으로서 작용하며 기술과 전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떠올랐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은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AI, 빅데이터 등 정보 기술이 기존 산업에 융합되거나 특정 기술들과 결합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과 첨단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융합되면서 모든 네트워크는 확장되고, 사물들은 지능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개념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다.

KIDP가 발간한 『디자인트렌드 2017: '4차 산업혁명'의 스타트라인』(2016), 『디자인트렌드 2018: 밀레니얼 세대의 노마드 마켓』(2017)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한 결과다. 분야별 '산업 트렌드 키워드' 전망부터 전 세계 180여 개 '혁신적 디자인 솔루션' 분석까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디자인과 기술의 진화와 융합을 다뤘다. 더불어 지난 50년 간 국내외 디자인 트렌드를 수집하고 분석해 온 자료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산업 및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했다.

2019년 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정하여 디자인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표현하기 힘든 무형의 가치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형상화하기 위함이다.

디자인산업 진흥 50년을 맞이하는 2020년, KIDP는 향후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산업 생태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 디자인 2050 비전을 선포한다.